

해방기 ‘다른 공간’의 의미와 “세계시민”으로서의 연대 가능성 — 『새로운 都市와 市民들의 습唱』을 중심으로

박은지 (경희대)

< 목 차 >

- | | |
|--------------------------------------|-----------------------------|
| 1. 문제제기 | 4. ‘합창’-연대의 가능성 앞에 선 (세계)시민 |
| 2. 신시론 동인의 지향성과 개별성 | 5. 나오며 |
| 3. ‘새로운 도시’라는 다른 공간: ‘등간’과 ‘지하실’의 의미 | |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신시론 동인의 두 번째 작품집인 앤솔로지 『새로운 都市와 市民들의 습唱』을 살피며 그들의 문학적 기획과 시적 대응을 검토하고자 한다. 신시론 동인 각자의 개별성에도 불구하고 앤솔로지를 낸 연유는 그들의 시적 지향성이 ‘새로움’에 있기 때문이다. 해방기 현실은 좌·우 이데올로기의 대립, 제국주의의 영향, 자본주의의 상륙으로 난항을 겪고 있었다. 이 같은 현실에서 신시론 동인은 ‘새로운 도시’를 꿈꾸기 위해 상상과 현실이 통합된 헤테로토피아를 생성해냈다.

‘새로운 도시’는 신시론 동인이 상상하는 유토피아로 관념적인 공간이라 할 수 있다. 그들은 헤테로토피아에서 유토피아를 꿈꿀 수 있는 가능성을 찾는다. 이 같은 인식은 신시론 동인을 모더니즘 계열로 파악하는 기존 인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각을 확보해준다. 김기림부터 이어진 뉴 컨트리 그룹의

수용은 신시론 동인이 역사적, 사회적 존재로서 자각하는 데 영향을 주었고, 세계시민으로서 식민 국가들과 연대할 수 있는 태도를 마련해주었다. 박인환의 시에 나타난 ‘인도네시아’와 임호권의 시에 등장한 ‘배인철’은 세계시민으로서 연대할 수 있는 실질적 공간인 헤테로토피아로 ‘사회적 책임’을 인지하고 있었던 신시론 동인의 현실 반영을 보여준다.

핵심어: 해방기, 신시론 동인, 새로운 도시와 시민들의 합창, 헤테로토피아, 연대, 세계시민

1. 문제제기

8·15 해방은 문학적 공백기를 경험한 문인들에게 정체성 탐색을 위한 힘을 마련해주었으며 새로운 문학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그러나 곧 이념 대립과 분단이 이어지며 한국문단은 해방이 촉발한 가능성을 충분히 탐색하지 못하고 혼란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방기¹⁾ 시인들이 어떤 감정을 느꼈고, 어떻게 대응했는지 살펴보는 것은 일제강점기와 1950년대 문학사를 잇는 동시에 격변 속에서 태동하는 문학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는 데서 의미를 갖는다. 해방기 문학은 조선문학건설본부, 조선프로레타리아 동맹, 조선문학가 동맹, 전조선 문필가협회, 청년문학가협회 등 문학 단체가 중심이 됐고, 이는 시대적 상황에서 개인보다는 집단의 행동이 더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1) 1940년대 중반은 용어사용에 있어 해방 직후, 해방공간, 해방정국, 미·소 군정기, 8·15 직후, 해방 3년, 해방 8년, 평화적 민주건설 시기(북한) 등 범위 및 관점에 따라 혼재된 양상을 보인다. 본고에서는 해방에서부터 비롯된 사건들이 남북국가수립 혹은 한국전쟁까지 연속성을 지닌다는 논리에 따라 해방기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김중희·강정구, 『민족을 기억하는 문학적 방식 - 1940년대 중반 기념시집을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30, 한국현대문학회, 2010, 291쪽 참조.)

각종 문학단체들이 뭉치고 흩어진 해방기에는 그만큼 공동 시집²⁾ 출간이 활발했는데, 제목만 살펴봐도 해방기 시인들의 문학적 대응을 단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시인들은 『해방기념시집』, 『해방기념시집 햇불』, 『삼일기념시집』 등 외적 현실, 즉 해방을 기념하는 내용 등의 제목을 사용하거나, 『전위시인집』, 『청록집』, 『신시론 1집』 등 창작 주체의 지향성을 표출하는 내용을 제목을 내세웠다. 이는 현실에 대한 직접적인 관심을 유발하는 시대적 특성에서 기인한 것³⁾으로 보이며, 해방 직후 분위기를 짐작해볼 수 있게 한다.

본고에서 눈여겨보고자 하는 시집은 ‘新詩論’ 동인⁴⁾의 두 번째 작품집인 앤솔로지 『새로운 도시와 시민들의 습합』이다. 이 공동 시집은 전 시대 모더니즘에 대한 비판과 그들과의 차이를 보여주며, 신시론 동인의 모더니즘적 이상을 ‘도시’와 ‘시민’이라는 개념을 통해 표현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⁵⁾

『새로운 도시와 시민들의 합창』의 특이할 만한 부분 중 하나는 시집 제목에서 드러나는 문학적 기획이다. 앞서 살펴본 해방기 공동 시집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변별점이기도 하다. 『새로운 도시와 시민들의 합창』에서는 ‘해방’ ‘기념’ 등 역사적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이나, ‘전위’ ‘동인 이름’ 등 지향성이나 정체성을 보여주는 표현을 찾아보기 어렵다. 신시론 동인은 구체적이고 해석의 여지가 있는 제목을 선택한 것이다.

신시론 동인은 이미 1948년 『신시론』 1집을 출간했기에 그들에게는 ‘신시

2) 해방기에 출간된 공동 시집으로는 중앙문화협회 편, 『해방기념시집』, 중앙문화협회, 1945; 권환 외, 『해방기념시집 햇불』, 우리문학사, 1946; 조선문학가동맹시부 편, 『삼일기념시집』, 건설출판사, 1946; 김광현 외, 『전위시인집』, 노농사, 1946; 박목월·조지훈·박두진, 『청록집』, 을유문화사, 1946; 조선문학가동맹시부위원회, 『연간조선시집』, 아문각, 1947; 김경린 외, 『신시론』 1집, 산호장, 1948; 김경린 외, 『새로운 도시와 시민들의 합창』, 도시문화사, 1949. 등이 있다.

3) 박용찬, 『해방기 시의 현실인식과 논리』, 역락, 2004, 15쪽.

4) 김경린, 김경희, 김병욱, 박인환, 임호권 등이 1947년 결성했다. 1948년 4월 『新詩論』 1집 간행 이후, 김경희, 김병욱이 탈퇴하고 김수영, 양병식이 합류하며 1949년 4월 『새로운 도시와 시민들의 습합』을 간행했다.

5) 허윤희, 『한국의 현대시와 시론』, 소명출판, 2007, 346~359쪽.

론 2집'이라는 비교적 간단한 선택지도 존재했다. 물론 '새로운'이란 단어가 신시론 동인을 지칭하며, 동인의 정체성과 맞닿아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그러나 국가가 아닌 '도시', 국민이 아닌 '시민'이 뒤따른다는 점, '합창'이라는 표현을 제목에 내걸었다는 점은 신시론 동인이 공동 시집 제목에 많은 의미를 내포하려 했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신시론 동인은 시단의 기성 질서에 대한 대담한 반역과 기성창조(既成創造)에의 끝없는 도전을 시도⁶⁾했다. 『신시론』 1집의 공동 선언문 성격を 지닌 『ESSAY』에는 그 지향성이 잘 드러나 있다. “여러湖水…들이 한 시냇물이 되어 바다를 向하여 흘러가려고 한다.湖水…들은 제가꿈의 族譜와 風箏를 지니고 있었으나. 그들은 圍繞…했던 年代의 歷史에서 비슷한 名詞를 지니고 있었다.”처럼 각기 다른 역사와 풍습을 지닌 여러 호수들이 한 시냇물이 되어 바다를 향하여 흘러간다는 것은 신시론 동인이 처음부터 확고한 이념으로 뭉친 것이 아니라 다양성을 토대로 결성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신시론 동인이 모더니즘과 리얼리즘 계열의 시인이 함께 참여했으며, 『신시론』 1집 발간 당시에는 현실 참여적인 리얼리즘 계열의 작품이 우세하였다가 『새로운 도시와 시민들의 합창』에 와서 모더니즘 계열의 작품이 주류로 떠올랐다는 연구⁷⁾와도 맥을 같이 한다. 동인의 분화 과정⁸⁾과도 연

-
- 6) 이봉래, 『朴寅煥과 댄디즘』, 金光均 외, 『歲月이 가면』, 槿城書齋, 1982, 108쪽.
 - 7) 권경아, 『‘신시론’ 동인의 역할과 위치 연구』, 『어문연구』 62, 어문연구학회, 2009, 264~265쪽.
 - 8) 『새로운 도시와 시민들의 합창』에 김수영은 시 두 편만을 발표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할 만하다. “인환이가 새로운 도시와 시민들의 합창을 계획했을 때 병욱도 처음에는 한몫 끼일 작정을 하고 있었는데, 경린이와의 헤게모니 다툼으로 병욱은 빠지게 되었다. 그러지 않아도 인환의 모더니즘을 벌써부터 불신하고 있던 나는 병욱이까지 빠지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나도 그만둘까 하다가 겨우 두 편을 내주었다. 병욱은 이때 내가 일본말로 쓴 『아메리카 타임지』를 우리말로 고쳐서 내주라고 했던 것 같다. 그래서 그에 대한 반발로 히야까시적인 내용의 작품을 히야까시조로 내준 것 같다.”(김수영, 『연극 하다가 시로 전향』, 『김수영 전집 2』, 민음사, 2003, 334쪽.)

결되는데, 갈등을 겪으면서도 동인을 해체하지 않고 『새로운 도시와 시민들의 합창』을 간행한 이유 또한 이들의 지향점이 모더니즘이나 리얼리즘으로 갈릴 수 없다는 데 있다. 확고한 이념을 공유한 것이 아닌 각기 개성을 간직한 느슨한 조직으로서 신시론 동인의 지향점 또한 모더니즘이나 리얼리즘 논의로는 설명이 불충분하다.

본고에서는 먼저 신시론 동인 각각의 시적 지향성과 개별성을 살피도록 하겠다. 이는 서로 다른 시적 지향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인을 결성한 이유에 답하기 위한 단초가 될 것이다. 해방기 한국의 현실은 해방 이전에 꿈꾸던 독립국가와는 달리 좌·우 이데올로기 대립, 제국주의의 영향, 자본주의의 상륙으로 난항을 겪고 있었다. 이 같은 현실에서 신시론 동인은 ‘새로운 도시’를 꿈꾸기 위해 상상과 현실이 통합된 헤테로토피아를 생성해낸다. 따라서 푸코의 헤테로토피아 개념을 기반으로 ‘새로운 도시’의 의미를 살피고, 새로운 도시를 꿈꾸며 연대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세계시민적인 면모를 함께 검토하고 그 의의를 밝히고자 한다.

2. 신시론 동인의 개별성과 지향성

『새로운 도시와 시민들의 합창』에는 김경린, 임호권, 박인환, 김수영이 창작시를, 양병식이 번역시를 실었다. 김경린, 임호권, 박인환은 창작시와 함께 서문격의 짧은 산문을 실었는데, 이는 시인의 시론이라고도 볼 수 있다. 공동 시집으로 묶였지만, 각 시인의 개성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김경린은 서문 『魅惑의 年代』에서 “低俗한 <리얼리즘>에 對抗하기 爲하여 出發한 現代詩”라며 ‘현대시’라 일컫은 김경린이 추구하는 시와 리얼리즘 시 사이에 분명한 차이를 밝히고 있다. 또한 “우리의 많은 先輩들도 自己 스스로가 <모-던리스트>임을 自處했고 또한<아방·갈트>임을 자랑하였으나 (...) 詩의 國際的인 發展의<코-스>와는 正反對의 方向에 기울어져가고 말았던 것”이라며 모더니즘 시가 국제적인 흐름이지만 일제강점기 등 현실의 여러

문제로 발전하지 못했음을 밝힌다.

한국시 또한 “하나의 歷史的인〈코-스〉를 向하여”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⁹⁾ 하는데, 리얼리즘 시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未解決의 問題가 散在하여 있지않는가”라며 자신의 모더니즘적 지향이 한국 현대시 역사를 이끌어 가야 함을 선언한다. 김경린의 시를 “前進하는 思考”로 파악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문학이 발전경로를 갖고 있다는 의식과 함께 그 선두에 모더니즘 문학이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비슷한 시기에 발표한 김경린의 산문 『現代詩와 言語』를 보면 그가 추구한 모더니즘 문학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김경린은 시가 “言語의機能에關한 새로운實驗으로부터 出發하여 온것”¹⁰⁾이라 보는데, 이는 “象徴語의 記號로서만이 아니라 思考하기위한 言語”로, “우리들의思考의 方向 또는그의 內容에 우리의 思考力과 同等의 指導力을 가짐으로서 思考의 修正과 또는이를 舍棄새로운 方向으로이끄러 나”간다.¹¹⁾ 언어를 사교 수단으로 간주하며, 언어에 대한 실험 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이미지’를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데, 그 배후에 자리 잡은 것은 ‘시대감각’이다.¹²⁾ 새

9) 김경린이 대표 집필하고, 동인들의 동의하에 실은 『새로운 도시와 시민들의 합창』 후기에는 “하나의作品 한 그룹의 藝術活動의 存在理由가 그것이 時代性을 忘却하지 않는限 그리고 詩의 歷史的正統을 無視하지 않는限 成立될 수 있”다며, 신시론 동인이 추구하는 시가 당대의 ‘시대성’을 갖추고 있고, ‘역사적 정통’ 아래 존재함을 밝힌다. ‘역사적인〈코-스〉’와 ‘역사적 정통’은 모더니즘 문학의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한 발언으로 보인다.

10) 김경린, 『現代詩와 言語』(上), 《경향신문》, 1949. 4. 22.

11) 김경린, 『現代詩와 言語』(下), 《경향신문》, 1949. 4. 23.

12) 김경린의 이 같은 모더니즘적 지향은 『신시론』 1집에 실린 김경린의 평론 『현대시의 구상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경린은 “우리들의 새로운 詩的 思考를 表現하기 爲하여 하나의 現實은 科學的인 面에서 正確한 速度로 採擇되어야 하며, 그 現實은 現實과 現實과의 새로운 結合에서 新鮮한 繪畫的인 이미지네이션으로서 具象되어야 한다. 이러한 새로운 結合을 規定하는 것은 詩的 思考이며, 다시금 이 새로운 思考에 速度를 加하는 것은 技術의 綜合的 액손인 것이다.”라며 새로움과 회화성을 강조하고, 언어의 자유가 중요함을 역설한다.

로운 양식으로서의 지적 모더니즘을 추구한 김경린의 인식은 도시 인식과 속도감으로 나타나며 1950년대 모더니즘의 기반을 만드는 데 일정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¹³⁾

임호권의 서문 『雜草園』은 김경린과 매우 상반된 입장을 내비친다. “바야흐로 轉換하는 歷史의 움직임을 모더니즘을 통해 思考해 보자는 新詩論同人들의 意圖와는 내 詩는 表現方式에 있어 距離가 멀다”며 의도적으로 자신의 시가 모더니즘과 차별화되어 있음을 강조한다.¹⁴⁾ “偶然한 機會에 손들을 잡은 友情이며 그리고 또한 同人들이 固執아닌 나의 生理를 寬容하기에 나는 여기에 參列한채 그냥 나대로의 詩의 世界를 菲才이나마 거러가는 연고다”라는 부분에서는 임호권의 시적 자유에 대한 고민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앞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신시론 동인이 “우연한 기회”로 결성되었으며, 서로의 시적 지향을 존중하는 느슨한 조직임을 짐작하게 한다.¹⁵⁾

이진영은 김경린의 『현대시의 원근』(《조선일보》, 1954. 12. 13.), 『방법론 서설』(《연합신문》, 1959. 10. 12.) 등을 검토하며, 김경린이 “시인의 생리와 언어는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새로운 세계를 구상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언어의 기능에 관한 새로운 실험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고 보았다. 김경린이 이후에도 이 같은 모더니즘적 지향을 계속 견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이진영, 『전후 현실의 조응으로서의 모더니즘 문학론』, 『한국문예비평연구』 33집,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0, 329쪽.)

13) 권경아, 『김경린 시에 나타나는 현대성 연구』, 『아시아문화연구』 17,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009, 203~204쪽 참고.

14) 엄동섭은 임호권의 이 같은 발언을 두고 “김경린이 주도한 모더니즘에 대한 반발일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한다.(엄동섭, 『『新詩論』 1집의 해체와 新詩論에 대한 새로운 이해』, 『근대서지』 1, 근대서지학회, 2010, 315쪽.)

15) 이는 『신시론』 1집 박인환의 후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어느날 茶房에서 T.S.에리옌의 『荒蕪地』의 翻譯에關하여 이야기하고있는분을 쳐다보았더니 그는 내가잘 아는 C氏의 親友인 金景熹氏라는 것을 알게되었다. 며칠後 前記茶房에서 雜談비슷한 同人誌의말을하고 있었는데 偶然이도 나타나신분이 張萬榮氏이다. 張氏는 곧 당신네들이 새로운詩運動을 끝끝내 하신다면 넉넉지못한 財政이나마 힘자라는데까지 協力을 하여주겠다는 믿을수없는 善意의 말이었다. 그리하여 그길로 林虎權氏 金

임호권은 김경린이 언어에 집중한 것과는 다르게 해방기 민중들이 겪는 가난과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반영하며, 이를 모더니즘적 인식으로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 시인으로 평가¹⁶⁾받고 있다. 이 같은 임호권의 현실 지향적 경향은 『신시론』 1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신시론』 1집에 발표한 『불노리』¹⁷⁾에는 ‘휘트먼’이 등장한다. 휘트먼(Walt Whitman)은 민중의 정서를 대변하며 기존 시 형식과는 다른 혁신적인 작품으로 미국 민주주의 정신을 노래한 시인이다. 시인과 사회는 공생관계에 있다고 보았으며, 미국의 물질주의를 비판하고 인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¹⁸⁾ 시에서 휘트먼을 인용했다는 것은 휘트먼의 사회 인식이 임호권이 지향하는 바와 상통했기 때문이다. 같은 책에서 인종차별에 저항하고 흑인의 해방을 표현한 미국의 시인 랭스턴 휴즈(Langston Hugh)의 작품인 『YESTERDAY AND TODAY』를 번역해 소개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¹⁹⁾

나는 不毛의文明 資本과思想의 不均整한 싸움속에서 市民精神에離反된 言語作用만의 어리석음을 깨달았었다
 資本의 軍隊가 進駐한 市街地는 지금은 憎惡와 안개긴 現實이 있을뿐……

環隣氏를 찾았다.”(박인환, 『후기』, 『신시론』 1집, 산호장, 1948, 16쪽.)
 박인환이 마리서사를 운영하며 문인들과 교류했던 것을 기반으로 신시론 동인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16) 맹문재, 『임호권의 시 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 50,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6, 171~172쪽.
- 17) “별들이/誕生하는 밤/히야신스 꽃잎이 시드는밤/都市의 지붕우에/불노리는/噴水…같이 오르고/炸裂하는 음향아래/사람들은 호터진다/그래도/한곳에선/휘트먼의 會話가 들려 온다/바람이어/항시 젊음이어/밤은/인생과 등불을 실고/장마의 아침/世界史의 코-스로/運河같이 흘러간다”(임호권, 『불노리』, 『신시론』 1집, 산호장, 1948.)
- 18) 맹문재, 『『신시론』의 작품들에 나타난 모더니즘 성격 연구』, 『우리문학연구』 35, 우리문학회, 2012, 223~224쪽.
- 19) 권경아는 임호권이 번역한 랭스턴 휴즈의 시가 사랑 노래임을 지적하며, 임호권이 사회 현실에 대한 관심을 서정의 형식으로 표현하려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권경아, 『‘신시론’ 동인의 역할과 위치 연구』, 『어문연구』 62, 어문연구학회, 2009, 256쪽.)

더욱멀리 지낸날 노래하였든 植民地의 哀歌이며 土俗의 노래는 이러한 地區에가란저간다

그러나 永遠의 日曜日이 내가슴속에 찾아든다 그러할때에는 사랑하든 사람과 詩의 散策의 발을 움겼든 郊外의 原始林으로간다 風土와 個性과 思考의自由를 즐겼든 詩의 原始林으로간다

아 거기서 나를 괴롭히는 無數한 薔薇들의 뜨거운 溫度

-박인환, 『薔薇의 溫度』 서문

한편 신시론 동인과 후반기 동인 결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박인환은 '언어 작용'만의 시는 '문명 자본과 사상'과 싸워야 하는 상황에서 '시민 정신'에 반하는 것이라 말한다. 시는 '언어 작용'을 넘어 '시민 정신'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인환에게 현실은 “자본의 군대가 진주한 시가지”이자 “증오와 안개 낀 현실”로, 자본주의와 제국주의로 인해 암담하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이기에 박인환은 “풍토와 개성과 사고의 자유를 즐겼던 시의 원시림”으로 간다.²⁰⁾ 물론 '원시림'이라는 비유적인 표현만으로 박인환의 시적 지향을 명확하게 알기는 어렵다. 그러나 박인환의 시적 지향이 '문명 자본'과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에 있다는 것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바이다.²¹⁾

20) 공현진·이경수는 이에 대해 “원시림으로 간다”는 것은 현실을 저버리고 영원의 세계로 회귀하겠다는 다짐이라기보다 오히려 『신시론』에서 박인환이 강조했던 “형상적 생명에 현실적 정신을 부합시키”려는 노력으로 본다. 시대정신 속에서 형상적인 생명 또한 잃지 않고 새로운 모더니즘을 추구하려는 박인환의 다짐과 의도로 해석했다. (공현진·이경수, 『해방기 박인환 시의 모더니즘 특성 연구 - 『신시론』 제1집과 『새로운 도시와 시민들의 합창』을 중심으로』, 『우리문학연구』 52, 우리문화회, 2016, 333쪽.)

21) 해방기 박인환의 시적 경향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송기환, 『역사의 연속성과 그 문학사적 의미 - 박인환의 경우』, 『문학사와 비평』 1, 문학사와 비평, 1991; 엄동섭, 『해방기 朴寅燮의 문학적 변모 양상』, 『어문논집』 36, 중앙어문학회, 2007; 정우택, 『해방기 박인환 시의 정치적 아우라와 전향의 반향』, 『반교어문연구』 32, 반교어문학회, 2012; 공현진·이경수, 『해방기 박인환 시의 모더니즘 특성 연구 -

번역시를 실은 양병식을 제외하고 모두 5편씩 창작시를 발표한 것과 달리 김수영은 “明白한 노래”라는 제목으로 『아메리카·타임誌』와 『孔子의 生活難』 두 편만을 발표했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인 분화 과정의 여파로 판단할 수 있다. 김수영은 『공자의 생활난』에서 무능력한 지식인을 등장시키며, “동무여 이제 나는 바로 보마”라고 말한다. ‘事物’의 ‘生理’ ‘數量’ ‘限度’ ‘愚昧’ ‘明哲性’을 명확히 인식하겠다는 것이다. 생활난에 대처하지 못하는 지식인을 ‘공자’로 표현하며 현실의 고난을 벗어나기 위해 기존의 인식에서 벗어나 사물을 ‘명백’하게 바라보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겠다는 태도가 드러난다.

살펴본 바와 같이 신시론 동인은 『새로운 도시와 시민들의 합창』이라는 제목으로 앤솔로지를 발간했으나, 같은 동인으로 묶인 시집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시적 지향이 매우 다르다. 김경린은 지속적으로 모더니즘을 호명하며, 임호권은 김경린과 다른 편에서 있다고 언급, 현실지향적인 면모를 보인다. 박인환은 자본주의와 계급주의 비판에 기울어 있으며, 김수영은 동아시아 지식인의 특성을 보여준다.

이 같은 개별성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의 시집에 목소리를 담은 연유는 이들이 지향하는 바가 ‘새로움’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들이 그리는 ‘새로움’이란 무엇인지, 특히 ‘새로운 도시’는 어떤 면모를 띠고 있는지 그 의미를 탐색해볼 필요가 있겠다.

3. ‘새로운 도시’라는 다른 공간:

‘등잔’과 ‘지하실’의 의미

신시론 동인의 ‘새로운 도시’에 대한 논의는 대부분 모더니즘적 시각에서 출발했다. 대표적으로 이봉례²²⁾는 ‘새로운 도시’가 새로운 희망과 의지를 불

『신시론』 제1집과 『새로운 도시와 시민들의 합창』을 중심으로, 『우리 문학연구』 52, 우리문학회, 2016.

22) 이봉례, 『해방기 모더니즘 시의 ‘도시’와 ‘시민정신’ 분석』, 『남도문화연

러일으키고, 역동적으로 창조되어야 할 곳으로 그려지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는 해방기라는 시대적 특징과 시인들이 갖고 있었던 모더니즘에 대한 기대와 의지가 표현된 것이라고 분석한다. 한편 조제웅²³⁾은 모더니즘 시는 도사에서 소외되고 가난한 서민들의 삶의 모습을 형상화한다고 한정지으며 임호권의 시를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박인환과 김경린의 시에 대해서는 문명 발달로 인해 변화하는 도시의 측면에서 서술한다.

한국문학에서 도시성은 도시적인 현상, 즉 ‘근대성’²⁴⁾으로 인식하거나, “자본주의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공간화된 자본주의’인 도시”²⁵⁾로 한정해왔다. 생각해볼 점은 이 두 경향이 분석의 대상을 각각 모더니즘이나 리얼리즘 작품으로 한정짓지 않는다는 것이다.²⁶⁾ 따라서 모더니즘이 아니라 문학적 ‘모더니티’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도시적 경험은 사회적, 역사적 경험이면서, 새로운 미적 경험이 새로운 미적 주체를 형성하는 경험이기 때문이다.²⁷⁾

이를 극복하는 방안 중 하나는 ‘새로운 도시’를 헤테로토피아로 접근하는 것이다. ‘다른 공간’으로 번역할 수 있는 헤테로토피아²⁸⁾는 실제하는 공간의

구』 18, 순천대학교, 2010, 157쪽.

23) 조제웅, 『엔솔로지 『새로운 도시와 시민들의 합창』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35~47쪽 참조.

24) 이는 문학에 나타난 도시체험과 이 체험이 주는 충격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것으로, 주로 대도시의 정신적 삶에 대한 연구를 통해 도시인의 삶을 조명한 게오르그 짐멜이나 산책자 개념으로 파리를 분석한 발터 벤야민의 문화이론에 근거하고 있다.(이양숙, 『한국문학과 도시성』, 『국문학 연구』 30, 국문학회, 2014, 116~117쪽.)

25) 김명인, 『근대소설과 도시성의 문제』, 『민족문학사연구』 16, 민족문학사학회, 2000, 192쪽.

26) 이양숙, 위의 논문, 118쪽.

27) 위의 논문, 119쪽.

28) “유토피아는 실제 장소를 갖지 않는 배치다. 그 배치는 사회의 실제 공간과 직접적인 또는 전도된 유비관계를 맺는다. 그것은 그 자체로 완벽한 사회이거나 사회에 반한다. 그러나 어쨌거나 유토피아는 근본적으로, 그리고 본질적으로 비현실적인 공간이다.

마찬가지로 아마도 모든 문화와 문명에는 사회 제도 그 자체 안에 디자인되어있는, 현실적인 장소, 실질적인 장소이면서 일종의 반(反)배치이

위상이 변해 발생하는 공간이고 양립 불가능한 공간을 마주하는 공간이기도 하며, 시간이 단절되는 공간으로 나타나기도 한다.²⁹⁾ 즉 헤테로토피아는 매체의 특성이 융합 또는 간섭, 변형이 일어나는 가상의 공간이지만, 상상의 경계가 허물어진 현실의 공간이기도 하다.³⁰⁾

해방을 맞이한 한국은 진정한 독립국가를 꿈꾸며, 유토피아를 그릴 수 있는 희망의 공간이 될 기회를 가졌다. 그러나 현실은 해방 이전의 상상과 완전히 달랐다. 고향을 떠났던 이들이 서울로 몰려들었고, 일자리와 먹을 것이 부족했을 뿐 아니라 강도가 빈번하게 출몰했다. 완전한 독립국가를 형성하지 못하고, 또 다른 형태의 식민 상황을 맞닥뜨렸다는 인식이 팽배했다. 친일파와 미군정, 좌·우 이데올로기 대립 또한 심화되고 있었다. 도시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정치적으로는 식민 권력이 공간적으로 구현³¹⁾돼 제국주의의 영향이 남아 있었으며,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의 영향을 피할 수 없었다. 이러한 해방 공간의 특성은 ‘다른, 낯선, 다양한, 혼종된’ 헤테로토피아를 생성해냈다. 김경린의 시부터 살펴보자.

길가에
汜濫하는 言論의 流行과
바람에 나부끼는 季節과

자 실제로 현실화된 유토피아인 장소들이 있다. 이 안에서, 실제 배치들, 우리 문화 내부에 있는 온갖 다른 실제 배치들은 재현되는 동시에 이의 제기당하고 또 전도된다. 그것은 실제로 위치를 한정할 수 있지만 모든 장소의 바깥에 있는 장소들이다. 이 장소는 그것이 말하고 또 반영하는 온갖 배치들과는 절대적으로 다르기에, 나는 그것을 유토피아에 맞서 헤테로토피아라고 부르고자 한다.”(미셸 푸코, 『헤테로토피아』, 문학과지성사, 2014, 46~47쪽.)

29) 김학중, 『재만 조선인 시에 나타난 ‘다른 공간’ 문제 연구』, 『비교한국학』 23권 1호, 국제비교한국학회, 2015, 93~94쪽 참조.

30) 윤수하, 『1930년대 한국모더니즘 시의 상상 공간 연구』, 『비평문학』 65, 한국비평문학회, 2017, 180쪽.

31) 김백영, 『식민지 도시성에 대한 이론적 탐색: 공간사회학적 문제설정』, 『사회와 역사』 72, 한국사회사학회, 2006, 193쪽.

오
구든 時間의 그림자 마저없는
市民들은
샘물이 흐르는 都心地帶를 向하여
疾走하고 있었다.

그러나
多感한 地面에
푸른 瞬間이 왔다하여
그대들이여
새로운 衣裳을 準備할 必要가 없다
地球의 表面을 달니는
選手들의 손바닥우에
빛나는 速度를 보라

-김경린, 「나부끼는季節」 부분.

김경린은 많은 시편에서 '속도'에 집중하는데, 이 시에서도 역시 '빛나는 속도'라는 시어를 통해 "시는 결국에 있어서 전진하는 사고"라는 자신의 모더니즘적 시각을 드러낸다. '빛나는 속도'는 '새로운 미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빛나는'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 김경린은 미래를 매우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민들이 '굳은 시간', 즉 과거의 '그림자' 없이 '샘물이 흐르는 도심지대를 향해 질주'하며, 과거에서 새로운 미래로의 이행을 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김경린이 꿈꾸는 '새로운 도시'가 어떤 모습인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오히려 '언론의 유행이 범람'하고, '바람에 계절이 나부끼는' 혼란스러운 현재 상황이 시에 보다 구체적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김경린은 '새로운 도시'에 대한 막연한 지향만 갖고 있지, 이를 현실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해낼 것인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김경린에게 '새로운 도시'는 그야말로 비현실적인 '유토피아'였던 것이다.

한편 임호권의 시에 대한 기존의 논의는 자신이 겪는 궁핍함을 민중들의 형편과 연관 지어 담아냈다고 해석하며 리얼리즘에 가깝다고 한정지어 왔다. 그러나 해방 공간에서 임호권이 그려낸 헤테로토피아적인 요소에 초점을 맞추면 다른 시각으로의 접근이 가능하다.

밤의 문이 열리어
고양이 같이 어둠이 기어와도
불은 오지 않는구나
慧敏아
등잔에 불을 켜라

(...)

慧敏아
동생 스테타 - 짜는 엄마 곁에서
너는 어서 독본을 외어라
이밤
깜박이는 석유불 밑이나
나도 써야할 原稿가 밀렸다

들창 넘어
바람이 울고
눈보래가 휘모라 쳐도
우리는 맞아야 할
봄을 그리며 살아가자
그리하여
忍冬의 날이 끄치면
오색 테이프와
네온의 波長이
거리마다 휘황 할께다

-임호권, 『등잔』 부분.

임호권의 현재는 가난하고, 추운 밤이다. 화자는 '등잔에 불을 켜라'라고 말하는데, 이 '등잔'이 매우 상징적이다. 시에서 가난과 추위, 어두움을 이겨 낼 수 있게 하는 것이 등잔이기 때문이다. 화자는 등잔 아래서 '봄을 그린' 다. 그가 그리는 '봄'은 '새로운 도시'라고 할 수 있다. '오색 테이프와 네온의 파장이 거리마다 휘황한' 축제의 공간이며, 이는 시의 마지막 행에서 '봄의 축제'로 직접적으로 표현된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등잔'이 '봄'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등잔 밑에서 원고를 쓰며 가난을 견디는 장면, '휘몰아치는 눈보라' 속에서도 '봄'을 꿈꾸는 장면에서 우리는 '실제로 현실화된 유토피아'를 목격하며, 실재하는 공간의 위상이 변하는 헤테로토피아적 배치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마지막 연에서 절정에 이른다. '가난하고 선량하던 시민'인 '너와 나'가 '무수한 등잔'을 부수는데, 이는 '가족'에서 마을, 도시, 국가 더 나아가 세계적 차원의 유토피아로 확대하자는 소망을 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임호권의 시 『生活』에서도 비슷한 배치가 드러난다. '항시 어두운 일곱 식구 살림'을 걱정하는 시인은 '별빛만이 쏟아지는 마당'에서 '밤차의 기적소리'를 듣는다. 밤차는 '사람들의 꿈을 싣고 내일을 위해 떠나가는' 중이다. '내일'이라는 유토피아는 구체적으로 그려지지 않지만,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가는 곳'이라고 여길 수 있는 건 '밤차' 덕분이다. '밤차'는 제국주의와 자본주의의 그늘에 놓인 해방 공간에서 현실화된 유토피아, 즉 헤테로토피아인 것이다. 박인환의 시도 살펴보자.

黃褐色階段을 내려와
모인사람은
都市의地平에서 싸우고왔다
눈앞에 어리는 푸른시·그·날·
그러나 떠날수없고
모다들 鮮명한 記憶속에 잠든다

달빛아래
우물을푸든 사람도
地下의秘密은 알지못했다

(...)

겨울의 새벽이어
너에게도 地熱과같은 따스함이있다면
우리의이름을 불러라

아직 바람과같은
速力이 있고
透明한 感覺이 좋다

-박인환, 『地下室』 부분.

위의 시에서는 헤테로토피아적 배치가 보다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지하실에 모인 사람들은 '도시의 지평에서 싸우고' 돌아왔다. 도시는 싸움의 공간이면서 '떠날 수 없는' 공간이다. '비밀의 공간'으로 그려지는 지하실엔 '지열의 따스함'이 있다. 싸우고 지쳐 돌아온 사람들이 회복할 수 있는 공간이다. '바람과 같은 속력'을 감지할 수 있고, 그것을 투명하게 느낄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혼란스러운 해방 공간의 '바깥에 있는 장소'인 지하실, 즉 헤테로토피아에서 사람들은 '새로운 도시'를 꿈꿀 수 있는 힘을 얻는다.

박인환의 이 같은 인식은 『列車』에서도 드러난다. 열차의 출발점은 '폭풍이 머문 정거장'으로 현재 해방 공간은 '폭풍' 속에 있는 것 같은 '황폐한 도시'이다. 그러나 '열차'에 올라서면 '죽음의 경사를 지나' '미래에의 외접선을 눈부시게 그으며' '핑크빛 향기로운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일종의 현실화된 유토피아인 열차를 타고 그들이 도착할 곳은 '처음의 녹지대', '황홀한 영원의 거리'다. '해성보다도 아름다운 새날보담도 밝은' '새로운 도시'를 꿈꿀 수

있게 하는 공간이 '열차'인 것이다. 임호권의 '밤차'와도 연결되는 지점이다.

유토피아가 실제 장소를 점유하지 않는 관념적 균질 장소를 제시한 데 반해, 헤테로토피아는 실제 장소를 점유하고 있는 실존이면서도, 장소와 장소 간 배치의 이질성에 따라 일상의 세계에서 이질의 세계로 건너가도록 하는 공간의식이다.³²⁾ 이상에서 볼 때 신시론 동인이 해방공간에서 그리는 '새로운 도시'는 유토피아로 관념적인 공간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렇게 유토피아를 상상할 수 있는 것은 등잔, 밤차, 지하실, 열차 같은 헤테로토피아에서 그 힘을 찾았기 때문이다. 일상적 공간을 이질적 공간으로, 유토피아적 공간으로 탈바꿈할 힘을 얻는 것이다.

4. '합창'-연대의 가능성 앞에 선 (세계)시민

신시론 동인이 1930년대 김기림의 시와 시론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³³⁾ 신시론 동인은 이미지즘으로 대표되는 김기림의 모더니즘을 적극 확대해 나갔는데, 그것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심화된 모더니즘 시의 단절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일이었을 것이다. 김기림은 신시론 동인 이후 후반기 동인 결성에도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신시론 동인의 영미 모더니즘 문학 수용 양상의 실마리를 김기림으로부터 찾는 것은 유의미한 작업일 수 있다.

김기림으로 대표되는 1930년대 모더니즘 문학은 '새로움'을 추구하면서도 시적 태도로서의 현실 인식을 잃지 않으려는 면모를 보였다. 김기림은 "이미

32) 박성준, 『이육사 시에 나타나는 낭만성과 '다른 공간들』, 『한국문예창작』 15권 1호, 한국문예창작학회, 2016, 16쪽.

33) 박인환이 신시론 동인 결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은 김기림의 영향이 컸는데, 박인환이 김기림의 영향으로 개인적 차원을 넘어 집단적 차원의 모더니즘 시 운동이 필요하다고 자각했기 때문이다. 또한 모더니즘 시가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영향을 받았다.(맹문재, 『신시론』의 작품들에 나타난 모더니즘 성격 연구, 『우리문학연구』 35, 우리문학회, 2012, 216쪽.)

그 역사적 의의를 잃어버린 偏向化한 기교주의는 한 전체로서의 시에 종합 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한 조화 있고 충실한 새 시적 질서에서의 지향이다. 전체로서의 시는 우선 기술의 각 부면을 그 속에 종합 통일해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전체로서의 시는 그 근저에 늘 높은 시대정신이 연소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³⁴⁾라며 ‘전체시’를 내세우면서도 ‘역사적 의의’와 ‘시대정신’을 놓지 않는다.

이는 김기림이 ‘뉴 컨트리 그룹(New Country Group)’³⁵⁾을 호출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³⁶⁾ 오든(W. H. Auden)을 비롯해 스티븐 스펀더(Stephen Spender), 맥니스(L. McNeice), 데이 루이스(C. Day Lewis) 등 뉴 컨트리 그룹은 인간의 내면을 실험적 형식으로 표현한 엘리엇(T. S. Eliot)과는 결을 달리하며 시대와 사회에 집중한다. 당시 영국을 포함한 유럽 대륙은 전쟁에 대한 공포와 함께 대공황으로 인해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었고, 파시즘의 광기는 유럽 전역을 뒤덮어 1939년 제2차 세계대전 발발로 절정에 달하는 절망적인 시기를 건너고 있었다. 뉴 컨트리 그룹이 시대와 사회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다.

뉴 컨트리 그룹 시인들은 자신들을 사회 부조리의 희생물로 파악하며 인간과 사회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시를 썼다. 또한 인간 개인의 문제

34) 김기림, 『시에 있어서의 기교주의의 반성과 발전』, 『김기림 전집』, 심철당, 1988, 99쪽.

35) ‘뉴 컨트리 그룹(New Country Group)’는 오든(W. H. Auden)을 좌장으로 ‘오든 그룹’(Auden Group)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들은 자신들의 시를 모아 1932년 『New Signature』, 1933년 『New Country』라는 공동시집을 발간했는데, 이러한 이유로 그들을 ‘뉴 시그나처’ 혹은 ‘뉴 컨트리’라는 이름으로 불렀다.

36) 1930년대 시문학의 뉴 컨트리 그룹 수용과 그 의미에 관한 논의는 다음을 참고할 만하다.

홍성식, 『한국 모더니즘 시의 스티븐 스펀더 수용』, 『동서비교문학저널』 제13호, 한국동서비교문학학회, 2005.; 김준환, 『1930년대 한국에서의 동시대 영국시 수용』, 『영어영문학』 53권 3호, 한국영어영문학학회, 2007.; 신주철, 『한국시단과 W. H. Auden』, 『세계문학비교연구』 제35집, 세계문학비교학회, 2011.

는 개인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집단 또는 사회에 의해 해결되거나 심화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³⁷⁾ 김기림이 뉴 컨트리 그룹에 관심을 둔 것은 모더니즘을 지향하면서, 식민지라는 부정적인 현실을 극복하려는 역사적 사회적 존재로서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 평가할 수 있겠다.

모더니즘을 표방한 신시론 동인도 뉴 컨트리 그룹의 영향을 받았다. 스펀더의 시 『決코實在하지는 않지만』을 양병식이 번역해 『새로운 도시와 시민들의 합창』에 실은 것이 그 흔적이라 하겠다. 그러나 뉴 컨트리 그룹을 보다 본격적으로 호출한 것은 신시론 동인에서 이어진 전후 ‘후반기’ 동인³⁸⁾, 특히 박인환이다.³⁹⁾ 박인환은 “나는 오래 전부터 S. 스펀더 씨의 시 작품과 그 문예 비평 또한 그의 시인으로서의 사회적 참가에 크게 공명한 나머지 해외의 시인으로서의 그의 오랜 친우인 W. H. 오든과 아울러 가장 존경했고 건방진 표현이긴 하나 크게 영향을 받은 바 있다”⁴⁰⁾고 밝히기도 했다.

오든은 그의 사회적인 책임은 시를 쓰는 데 있고 인간에 성실하려면 이 세계 풍조를 그대로 묘사하여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오든뿐 아니라 현대시의 발전을 위하여 한국의 일각에서 손가락을 피로 적시며 시의 소재와 그 경험의 세계를 발굴하고 있는 후반기 멤버의 당연된 최소의 의무일

37) 허현숙, 『오든』, 건국대 출판부, 1995, 35쪽.

38) 남승원은 이봉래의 시론을 중심으로 영미 모더니즘 수용의 한국적 특수성에 주목하며 전후 모더니즘 시론의 논의 과정에서 현실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시적 태도와 방법으로 자리 잡는지 살펴보았다.(남승원, 『이봉래 시론의 현실인식과 영미 모더니즘』, 『한국문예비평연구』 제59집, 한국문예비평학회, 2018.)

39) 박인환과 뉴 컨트리 그룹에 관한 논의는 다음을 참고할 만하다. 박몽구, 『박인환의 도시시와 1950년대 모더니즘』, 『한중인문학연구』 제22집, 한중인문학회, 2007.; 공현진·이경수, 『해방기 박인환 시의 모더니즘 특성 연구』, 『우리문학연구』 제52집, 우리문학회, 2016.; 맹문재, 『박인환의 시에 나타난 엘리엇과 스펀더의 시론 수용 양상』, 『동서비교문학저널』 제41호, 한국동서비교문학학회, 2017.; 최라영, 『박인환과 S. 스펀더의 문명 의식 연구』, 『한국시학연구』 51호, 한국시학회, 2017.

40) 문승묵 편, 『박인환 전집』, 예음, 2006, 262쪽.

지도 모른다.41)

박인환은 전후 후반기 동인의 의무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다. 전쟁과 자본주의, 제국주의에 대해 "손가락을 피로 적시며" 현실 세계를 사실적으로 형상화한 박인환의 시 정신을 재확인할 수 있는 맥락이기도 하다. 전후 황폐해진 현실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시금 뉴 컨트리 그룹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처럼 한국 시문학은 30년대와 50년대 험난한 역사를 통과하며 문학적 위기를 겪을 때마다 영미 모더니즘, 뉴 컨트리 그룹을 수용하며 새로운 시문학을 향한 도전을 이어나갔다.

30년대와 50년대 호명된 뉴 컨트리 그룹의 영향은 해방기에도 존재했다. 『새로운 도시와 시민들의 합창』에 실린 스펀더의 번역시는 차치하더라도 동인들의 시편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박인환은 '사회적인 책임'을 국내로 한정짓지 않고, 전지구적으로 확대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식민국가의 고통에 동참하는 면모를 보인다. 뉴 컨트리 그룹으로부터 문명과 시대를 바라보는 관점에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제국주의의 침탈로 황폐화된 식민지에 집중한다는 측면에서 그들과의 차이점을 보여준다.

이를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시가 박인환의 『인도네시아人民에게주는詩』이다. 제국주의에 대항하여 "힘 있는 대로 영웅 되어 싸"운 "우리과 같은 식민지의 인도네시아"에 보내는 시이다. 이 시에서 화자는 "사랑하는 인도네시아 인민"에게 식민지 역사에서 벗어나 진정한 독립을 위해 함께 모여 투쟁하여야 함을 독려한다. 시인의 현실 인식과 사회적 책임이 전 세계, 특히 식민국가로 확장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전 인민은 일치단결하여 스킨처럼 부서져라"와 같은 구절에서 박인환은 인민들이 모여야만 해방이 온다고 주장하며, "인도네시아의 인민"과 "조선에 사는 우리"가 무관하지 않음을 이야기한다. 연대의 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인데 이 같은 연대는 유토피아적 상상력이 기반인 것으로 보인다. 연대가 관념

41) 박인환, 『현대시의 불행한 단면』, 김경린 편, 『한국 모더니즘 시운동 대 표동인 시선』, 앞선책, 1994, 95쪽.

적으로 비춰지기도 하는데, 실제 삶의 현장에서 연대가 이루어졌다기보다 막연한 상상 속에서 구현된 것이기 때문이다.

연대를 통해 기대하는 전망이 환상에 가까우리만큼 낙관적이기도 하다. 그러나 박인환에게 인도네시아는 유토피아로 그치지 않다. “피흘린 자바섬(島)에는 / 붉은 간나의꽃”이 피는 인도네시아는 현실화된 장소로 나타난다. 인도네시아는 “죽엄의보람이 南海의太陽처럼 / 朝鮮에서는 우리에게도 빛”이며, 이 공간을 통해 “海流가 부디치는 모든 陸地에선 / 거룩한 인도네시아 人民의 / 來日을 祝福”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를 통해 유토피아를 꿈꿀 수 있는 것이다. 이 같은 헤테로토피아적 공간에서 제국이 취했던 폭력적인 방식 대신 전통악기인 ‘가믈란’과 자바의 대표무용 ‘스림피’를 통해 ‘독립’을 꿈꾸는 풍경에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려는 시인의 의지가 읽힌다. 인도네시아에 재현된 저항정신과 독립운동은 반제국주의적 사상뿐만 아니라 해방기의 혼란스러운 정국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다.⁴²⁾

이처럼 사회 안에 존재하며 유토피아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실제로 현실화된 유토피아인 헤테로토피아는 임호권의 시에서 그의 친구 ‘배인철’로 그려진다.

그 모습 별처럼 꺼졌는가
니·그·로·의 詩人아
빛갈을 통해
弱小民族의 슬픔을 노래하던

42) 박인환은 그의 또 다른 시 『南風』에서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베트남 등 남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제국주의 투쟁을 그린다. 또한 “亞細亞 모든 緯度 / 잠든 사람이여 / 귀를 기우려라”라며 아시아의 잠든 이들이 깨어나 항쟁하는 국가에서 나는 총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열기에 공동으로 대응하여야 한다고 역설한다. 눈을 뜨면 “가난한 가슴팍으로 숨여 드는” “南方의 향기”를 통해 ‘새로운 나라’, 제국주의로부터 벗어난 세계를 꿈꿀 수 있으며, 이 같은 내용을 비추어볼 때 유토피아적 기능을 수행하는 헤테로토피아로 그려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대 육체란
흑인部隊 실은 列車이던가
남기고 간 많지 않은 詩稿들은
목 메어 외치던
서글픈 汽笛소리

밤도 와
사랑과 眞實
때로는 拳鬪 얘기로
수다스러웠던 그대
異邦을 찾아 가던
따스한 호흡은
모든 黑人種의 마음 우에 부어준 香油

色있는 비애
테이프는 끊기지 않고
迫害의 그림자 머므른채 있는데
不死鳥의 정신만 풍기우고
바람처럼 떠나 갔는가
검은 동무를 노래한 詩人아

-임호권, 『검은 悲哀- 故 喪仁哲에게』 부분.

임호권은 위의 시에서 배인철을 “니그로의 詩人”으로 그리고 있는데, 실제로 그는 “검은 동무를 노래한 詩人”이었고, “빛갈을 통해/弱小民族의 슬픔을 노래하던” 시인이었다. 인종 차별을 고발하는 것은 물론 제국주의에 맞선 인물로 평가받는다. 배인철이 “남기고 간 많지 않은 詩稿들은/목 메어 외치던/서글픈 汽笛소리”였고, 그의 “따스한 호흡은/모든 黑人種의 마음 우에 부어준 香油”였다. 그의 “넘어진 육신은/人種線 넘어 검둥이들 가슴패기에 묻혔”을 정도로 “사랑과 眞實”을 추구했다. 그렇지만 그는 “무슨 운명이”었는지 “유달리도 짧았던 生涯”를 살았다.⁴³⁾

배인철은 흑인시를 통해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 중심으로 제국주의 질서 체제가 재편되는 모습을 파악하고 대항해나갔다. 백인에 의해 인종 차별을 받는 흑인들이나 미군정에 의해 억압받는 조선 민중들의 처지가 유사하다고 인식하고 연대 투쟁을 추구한 것이다. 인종 차별을 개별적이거나 지역적인 문제로 간주하지 않고 정치적인 문제로 접근했다. 그리하여 그의 흑인시는 미국의 정체성을 알려주고 해방기 조선의 상황을 인지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받는다.⁴⁴⁾

임호권의 시에 등장하는 화자 역시 미군정의 상황을 간파하고 있다. 흑인을 약소민족의 민중으로 인식하고 노래한 배인철을 추모한 데서 확인된다. 배인철이 있었기에 화자는 해방기의 불합리한 미군정에 대항할 수 있었고, “그대 별들과 숨쉴하는 / 새로운 검은노래”를 상상할 수 있었다. 배인철과 연대하며 임호권은 유토피아를 탄생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박인환과 임호권의 시에서 확인한 ‘연대’⁴⁵⁾는 신시론 동인의 현실 반영의 결과이다. 뉴 컨트리 그룹의 영향은 역사적 사회적 존재로서 자각할 수 있게 했고, 이는 세계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이들이 찾아낸 답은 연대이다. 연대를 통해 이들은 유토피아를 꿈꿀 수 있으며, ‘인도네시아’나 ‘배인철’ 등을 통해 헤테로토피아적 공간으로 거듭난다.

덧붙이면 신시론 동인이 개별 시집이 아닌 앤솔러지를 발간한 것도 이 같

43) 1947년 5월 10일 이화여대 학생이었던 김현경과 서울 남산에서 데이트를 하다가 충격을 받고 28세의 나이에 사망한 것이다. 이 사건은 ‘치정에 얽힌 살인 사건’으로 종결되었지만, 그가 남로당의 조직에 깊이 관여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우익들의 미행이 있었던 정황 등으로 보아 정치적인 사건일 가능성이 크다.(맹문재, 『배인철의 흑인시에 나타난 주제 의식 고찰』, 『한국시학연구』 42호, 한국시학회, 2015, 102~103쪽.)

44) 맹문재, 위의 논문, 121쪽.

45) 신시론 동인의 시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연대’와 관련한 논의는 박인환에 집중돼 있다. 강계숙은 박인환의 시에서 ‘시민’은 예술과 정치를 하나로 실현하는 자의 이름이라 칭하며, 연대를 형제애로 파악, 어려운 역경을 딛고 연대하는 자를 ‘새로운 시민’으로 일컫는다.(강계숙, 『불안의 정동, 진리, 시대성 박인환 시의 새로운 이해』, 『현대문학의 연구』 51, 한국문학연구학회, 2013, 449쪽.)

은 연대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추측된다. 신시론 동인 개개인이 가진 개별성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의 시집에 목소리를 담은 연유는 이들이 지향하는 바가 '새로움'에 있다는 것과 동시에 '연대'를 드러내기 위해서다. 합창이 의미하듯, 서로 다른 목소리가 모여 새로운 사회, 유토피아를 결성해보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5. 나오며

지금까지 신시론 동인의 두 번째 작품집인 『새로운 도시와 시민들의 합창』을 살피며 그들의 문학적 기획을 확인하고, 해방기 시인들의 시적 대응을 검토했다. 신시론 동인은 확고한 이념 아래 결성된 조직이라기보다 느슨한 조직이었다. 그들의 시적 지향은 각각 매우 다른데, 김경린은 지속적으로 모더니즘을 호명하고, 임호권은 김경린과 다른 편에 서 있다고 언급, 현실지향적인 면모를 보인다. 박인환은 자본주의와 제국주의 비판에 기울어 있다.

이 같은 개별성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의 시집을 낸 연유는 이들이 지향하는 바가 '새로움'에 있기 때문이며, 이 같은 새로움은 해방공간을 헤테로토피아로 인식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 앤솔로지 제목의 '새로운 도시'는 유토피아로 관념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지만, 동인들은 '등잔', '땀차', '지하실', '열차' 등 상상과 현실이 통합된 헤테로토피아를 생성해내며, 유토피아를 꿈꿀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았다. 이 같은 인식은 기존의 모더니즘 계열, 리얼리즘 계열 등으로 구분지어 시인들을 평가하는 데서 벗어난 시각이다.

또한 김기림부터 이어진 뉴 컨트리 그룹의 수용은 신시론 동인에게도 영향을 미쳐 이들이 역사적 사회적 존재로서 자각할 수 있게 도와주었고, 세계 시민으로서 식민 국가들과 연대할 수 있는 태도를 확보해주었다. 박인환의 시에 나타난 '인도네시아'와 임호권의 시에 등장한 '배인철'은 세계시민으로서 연대할 수 있는 실질적 공간인 헤테로토피아로 '사회적 책임'을 인지하고 있었던 신시론 동인의 현실 반영을 보여준다.

한편 앤솔로지 그 자체가 바로 헤테로토피아적 공간이며 연대가 직접적으

로 드러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개별 시인들의 '다른 공간'들이 합산돼 새로운 사조를 꿈꿀 수 있는 공간으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문학적 합창이 의미하듯, 서로 다른 목소리가 모여 새로운 사회, 유토피아를 결성해보겠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헤테로토피아로서의 앤솔로지는 충분히 해명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 추후 논의로 남겨둔다.

참 고 문 헌

- 김경린 외, 『신시론』 1집, 산호장, 1948
- 김경린 외, 『새로운 도시와 시민들의 합창』, 도시문화사, 1949.
- 강계숙, 『불안의 정동, 진리, 시대성 박인환 시의 새로운 이해』, 『현대문학의 연구』 51, 한국문학연구학회, 2013.
- 공현진·이경수, 『해방기 박인환 시의 모더니즘 특성 연구 - 『신시론』 제1집과 『새로운 도시와 시민들의 합창』을 중심으로』, 『우리문학연구』 52, 우리문학회, 2016.
- 권경아, 『『신시론』 동인의 역할과 위치 연구』, 『어문연구』 62, 어문연구학회, 2009.
- , 『김경린 시에 나타나는 현대성 연구』, 『아시아문화연구』 17,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009.
- 김경린, 『現代詩와 言語』(上), <경향신문>, 1949. 4. 22.
- , 『現代詩와 言語』(下), <경향신문>, 1949. 4. 23.
- 김기림, 『시에 있어서의 기교주의의 반성과 발전』, 『김기림 전집』, 심설당, 1988.
- 김명인, 『근대소설과 도시성의 문제』, 『민족문학사연구』 16, 민족문학사학회, 2000.
- 김백영, 『식민지 도시성에 대한 이론적 탐색: 공간사회학적 문제설정』, 『사회와 역사』 72, 한국사회사학회, 2006.
- 김수영, 『연극 하다가 시로 전향』, 『김수영전집 2』, 민음사, 2003.
- 김종희·강정구, 『민족을 기억하는 문학적인 방식 - 1940년대 중반 기념시집을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30, 한국현대문학회, 2010.
- 김학중, 『재민 조선인 시에 나타난 ‘다른 공간’ 문제 연구』, 『비교한국학』 23권 1호, 국제비교한국학회, 2015.
- 남승원, 『이봉래 시론의 현실인식과 영미 모더니즘』, 『한국문예비평연구』 제

- 59집, 한국문예비평학회, 2018.
- 맹문재, 『『신시론』의 작품들에 나타난 모더니즘 성격 연구』, 『우리문학연구』 35, 우리문학회, 2012.
- , 『배인철의 흑인시에 나타난 주제 의식 고찰』, 『한국시학연구』 42호, 한국시학회, 2015.
- , 『임호권의 시 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 50,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6.
- , 『『신시론』의 작품들에 나타난 모더니즘 성격 연구』, 『우리문학연구』 35, 우리문학회, 2012.
- 문승묵 편, 『박인환 전집』, 예옥, 2006.
- 미셸 푸코, 『헤테로토피아』, 문학과지성사, 2014.
- 박성준, 『이육사 시에 나타나는 낭만성과 ‘다른 공간들’』, 『한국문예창작』 15권 1호, 한국문예창작학회, 2016.
- 박용찬, 『해방기 시의 현실인식과 논리』, 역락, 2004
- 박인환, 『현대시의 불행한 단면』, 김경린 편, 『한국 모더니즘 시운동 대표동인 시선』, 앞선책, 1994.
- 엄동섭, 『『新詩論』 1집의 해제와 新詩論에 대한 새로운 이해』, 『근대서지』 1, 근대서지학회, 2010.
- 윤수하, 『1930년대 한국모더니즘 시의 상상 공간 연구』, 『비평문학』 65, 한국비평문학회, 2017.
- 이봉래, 『朴寅煥과 댄디즘』, 金光均 외, 『歲月이 가면』, 槿城書齋, 1982.
- 이봉래, 『해방기 모더니즘 시의 ‘도시’와 ‘시민정신’ 분석』, 『남도문화연구』 18, 순천대학교, 2010.
- 이양숙, 『한국문학과 도시성』, 『국문학연구』 30, 국문학회, 2014.
- 이진영, 『전후 현실의 조음으로서의 모더니즘 문학론』, 『한국문예비평연구』 33집,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0.
- 조제웅, 『엔솔로지 『새로운 도시와 시민들의 합창』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허윤희, 『한국의 현대시와 시론』, 소명출판, 2007.
허현숙, 『오든』, 건국대 출판부, 1995.

【Abstracts】

**The Meaning of the ‘Other Space’ and Possibility of
a Post-Liberation Period Solidarity as “World Citizen”**

– with Focus on The New City and the Chorus of the Citizens

Park Eunji

This article examines the literary project pursued by the coterie journal *Sinshiron*, focusing on its second poetry anthology *The New City and the Chorus of Citizens*, and reviews its poetic responses to the post-liberation zeitgeist. This newness called for the recognition of the post-liberation space as a heterotopia. After the shattered hope for an independent country dreamt of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rule, *Sinshiron* created a heterotopia, in which imagination and reality were merged, in pursuit of a “new city.”

By embracing the New Country Group, the *Sinshiron* coterie members came to cultivate attitudes of solidarity towards colonial nations as world citizens. “Indonesia” and “Bae In-cheol” depicted in the poems of Pak In-hwan and Im Ho-kwon, respectively, demonstrate the reality perceived by the *Sinshiron* coterie members, who were aware of their “social responsibilities” as world citizens inhabiting the heterotopia as a practical space geared towards building global solidarity.

Key Words: Modern Korean poetry during the post-liberation period, *Sinshiron* coterie, *The New City and the Chorus of the Citizens*,

Heterotopia, Solidarity, Cosmopolitanism/World citizen

이 논문은 2019년 02월 15일에 투고되었으며, 2019년 03월 15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9년 03월 25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